

# 이주민 위한 자비보시행 눈길

7월 10일 외국인 근로자 쉼터 마련 위한 음악회



2500여명의 불자들이 가득 채운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가수 안치환 씨가 노래를 하고 있다.

호남지역 불자들이와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한 감동과 화합의 음악회가 개최됐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지난 7월 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광주 외국인 쉼터 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 '아름다운 꽃이여라'가 펼쳐졌다.

이날 음악회에는 스님과 불자들 2500여명이 1800석 규모의 대극장을 가득 채우고 통로까지 자리를 점하는 등 높은 호응 속에 개최됐다.

라판타지아' 등의 연주가 함께 좌중의 심금을 적셨다.

정목 스님은 이날 강연에서 "나와 주변의 고통의 원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강조하고, "자신을 늘 점검하며, 돌아보기를 바란다"며 불자들의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이 힐링임을 강조했다.

행사장 주변 곳곳에는 광주전남불교 NGO연대의 회원단체 실무자와 자원봉사자들이 행사장의 도움미로 자정해 재가불자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행사를 마련한 이주성 광주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은 "우리사회가 풍족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대신, 어렵고 힘든 일은 이노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다. 최근 이들은 한국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음악회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우리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한국생활에서 힘든 점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작은 지대방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다"라고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 정목 스님 · 안치환 힐링 콘서트 수익금 전액 이주민 쉼터 마련 사용 故 범능 스님 추모도 진행

행사는 미환사 주지 금강 스님의 진행으로 광주외국인복지센터를 알리는 영상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다 최근 임직한故 범능 스님의 마지막 유작 앨범인 '나 없어라'가 스님의 생전 영상과 함께 흘러나왔다. 행사 개막은 장내에는 스님을 추모하는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과 함께 시작됐다.

행사장은 가수 안치환 씨의 노래가 되면서 활기를 띄웠다. 안치환 씨는 이날 자신의 히트곡인 '내가 만일', '인생은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 다양한 노래와 범능 스님의 유작노래를 불러 관중들의 환호에 답했다.

행사의 말미는 불교 힐링의 대가로 꼽히는 정목 스님의 '목 하나'가 장식했다. 이날 정목 스님의 힐링 강좌에는 정겨운 피아니스트의 '당신은 소중한 사람', '넬

외국인근로자쉼터는 대부분 불교국가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온 외국인들에게 작은 쉼터 역할을 하며,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위한 한시적 주거공간과 휴식처를 제공한다.

또한 범 테두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법률 상담실과 한국음악, 운동공간, 문화공간과 자기 나라의 전통문화 활동을 고국의 친구들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센터가 위치한 곳이 공단과 도시, 농촌이 어울어져 있는 곳으로 쉼터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인성 교육과 부모교육, 취업상담 등을 같이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선운사 지장신앙 원찰 명성 이어간다

7월 7일 지장보궁 조성 완료... 일본 환수 지장보살 봉안

삼장(三藏) 지장보살을 모신 국내 유일의 지장도량 고창 선운사가 지장보궁 조성 불사 회향법회를 열고 지장기도도량으로 사격을 회복했다.

고창 선운사(주지 범만)는 7월 7일 재관, 범려, 재덕 스님 등 본말사 스님들과 정만수 선운사 신도회장 등 불자 3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지장보궁 조성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범만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국내 유일의 삼지장 기도도량으로 일군 조사스님들의 정신과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구현하여 기도와 수행, 복지와 문화공동체를 이루겠다"며 "지장기도 성지의 사격에 맞는 지장보살 선양운동을 널리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관 스님은 범어를 통해 "지장보살은 자신의 성불을 미루면서까지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원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보살이다"며 "이러한 지장보살의 원력을 실천하는것이 불자로서의 사명이다. 열심히 기도와 수행진전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향한 선운사 지장보궁은 정면 7칸, 측면 3칸(연면적 731.25㎡)의 2층 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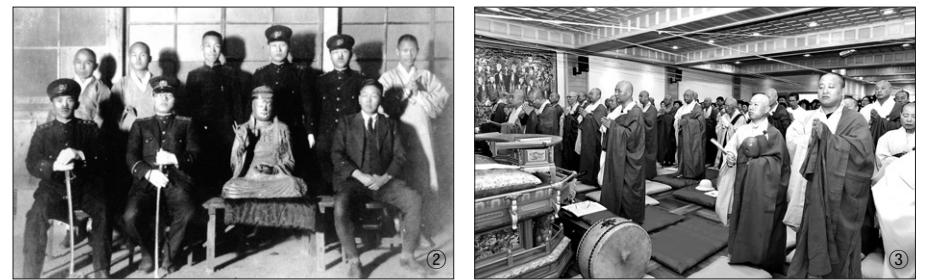
구조로 이전까지 선운사 성보박물관으로 이용됐다. 지장보궁에는 이날 일제 강점기인 1936년 2명의 일본인 도굴범들에 의해 일본에 밀반출됐다 환수된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보물 제279호)이 봉안됐다.

선운사에는 지장보궁의 지지(持地)지장보살(보물279호)과 도솔암의 천장(天藏)지장보살(보물280호), 참담암의 인장(人藏)지장보살(전북유형문화재33호)의 삼장(三藏)지장보살을 모두 모셔졌다.

## 국내 유일 삼장보살 봉안 사찰 사격

## 천장·지장·인장보살 선양운동 계획

선운사는 법회 이후 지장보궁 앞 뜰에서 연산대제를 봉행했다. 지장보궁에 봉안된 금동지장보살좌상은 1936년 일본인 도굴범들에 의해 일본으로 밀반출됐으나 지장보살상을 소장한 사람마다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 마지막 소장자가 현몽을 꾸고 고창경찰서에 연락해 1928년 선운사 스님들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 선운사로 이운해 왔다. 이후 금동지장보살상은



지장보궁 조성불사 회향법회(①, ③)와 일본에서 반환당시 모습(②).

관음전에 봉안되어 있었으나 도난과 훼손을 우려해 선운사 성보박물관에 봉안돼 있었다.

한편 선운사는 이날 대웅보전에서 재연 스님을 포살법사로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송광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0주년

송광불교계의 대표적 사회복지시설인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제)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지역민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

송광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은 1993년 7월에 개관해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자활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특히 송광푸드뱅크, 광산나눔드림푸드마켓, 광주하늘사랑 등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송광어린이집, 송광지역아동센터, 송광사회복지시설, 송광노인복지센터, 송광가정폭력상담소, 소년가장 그룹홈 '길상원' 등 지역복지기관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은 불교계가 현재 5번에 걸쳐 재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의 우수복지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우산동 시영2단지 옆 근린공원에 개최된 개관 20주년 기념행사에는 기념식, 시상, 나눔문화행사, 영상음악제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도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있기에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었고, 직원들의 노고와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지역 주민들, 관련 행정기관은 도움이 있었다"며, "불교의 자비와 이타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복지 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통해, '공동체 복지', '자생적 복지', '경제적 복지', 문화적 복지'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사회복지 바라미 이사장 현고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 김동철 국회의원, 민행배 광산구청장 등 500여 스님과 지역민들이 함께했다.

시상식에는 도제 스님의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장을, 지역민과 우수 직원들이 공로패와 감사패 등을 수상했다.

2부 나눔문화행사에는 참석한 지역민들에게 비빔밥과 민요, 벨리댄스, 통기타 등 문화공연이 진행되었고, 마지막에는 영화 '7번방의 선물'이 상영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청화 스님 선서화 순천전시회

한국불교의 큰 스승이었던 무주당 청화 스님(1924-2003)의 범문을 선서화로 만드는 전시회가 열렸다.

성륜불교문화재단(이사장 용타)과 곡성성륜사(주지 무상)는 지난 7월 6일~12일까지 순천시립 문화건강센터에서 '청화 스님 열반 10주기 추모 선서화 초대전'을 개최했다.

이날 초대전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인 서예 박경순 씨가 청화 스님의 법문과 열반게, 발원문, 관음찬 등을 그림 120여점을 전시했다.

무상 스님은 인사말에서 "엄정한 수행자의 표본과 자애로운 성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끝없이 베풀어주시는 범유지은(法乳之恩)을 어찌 필설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하지만 일 점, 일 획에 정성을 다하여 대가의 심혼(心魂)을 담아 큰스님의 유지를 되새겨본다"고 말했다.

전시회는 순천전에 이어 오는 7월 14~20일까지 진주에 위치한 경남도립 문화예술회관과 7월 22일~8월 11일 곡성에 위치한 전남도립 옥곡미술관에서도 개최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익산 승림사 방하착 템플스테이

익산 지역 유일의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익산 승림사(주지 지광)는 7월 6~7일 익산지역의 신행단체회원, 직장인, 주부, 대학생, 고등학생등을 대상으로 쉬고 버리고 내려놓는 방하착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보광전에서 열린 입제식에서 지광 스님은 "소중한 여름휴가를 산사에서 보내며 사회와 학교에서 쌓였던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버리고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불교 전통 식사 발우공양을 통해 불교의 예법과 음식의 소중함을 배우고 저녁 예불에 앞서 각자 소망을 기원하며 범종을 직접 타종해 보는 기회도 가졌다.

이어 참선체행, 아침예불, 108배, 합라산 돌레길 포행을 하며 잠시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다. 또 예전에 용공사가 있었다는 용포 공개나루 덕양정에서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좌선 삼매에 들기도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 자비의 미안마 돕기

##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맑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의식 지원**  
신부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피아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명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